



[바이든 시대]
美 저금리 유지 전망
'고공행진' 집값
안 꺾일 듯
03



코스피 2447.20 (+30.70)	↑	코스닥 851.21 (+14.43)
금리 (국고체 3년) 0.959 (+0.016)	↑	환율 (원·달러) 1113.90 (-6.50) (9일)

‘최고금리 인하’ 여·야·정 한목소리 소급적용 불가피 속 타는 저축은행

% 진퇴양난 금리정책

❸ 年 24%→20% 가닥

법안소위, 이달 말 본격 논의
이자제한·대부업법 동시추진
제2금융권 소급적용 추진에
수익성 악화 우려 전전긍긍

21대 국회의 첫 금융법안은
법정 최고금리를 기준 25%에서
연 20%로 내리자는 법안이다.
이번 법안은 정부가 국정과제로
선정하고 있고, 여야간의 의견
이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
통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
적이다.

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
국회 정무위원회·법제사법위원회
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재 연
25%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
20%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본격
적으로 논의한다. 앞서 정부는
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

〈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변동표〉 (단위: %)

이자제한법		대부업법	
기간	최고이율	기간	최고이율
1980.1.12~1983.12.15	40	2002.6.27~2007.10.3	66
1983.12.16~1997.12.11	25	2007.10.4~2010.7.20	49
1997.12.12~1998.1.12	40	2010.7.21~2011.6.26	44
1998.1.13~2007.6.29	폐지	2011.6.27~2014.4.3	39
2007.6.30~2014.7.14	30	2014.4.4~2016.3.2	34.9
2014.7.15~2018.2.7	25	2016.3.3~2018.2.7	27.9
2018.2.8~	24	2018.2.8~	24

2018년 시행령을 통해 최고금리
를 연 24%까지 낮춘 상태다.

◆이자제한법, 대부업법 동시 개정 추진

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
고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발의된
'이자제한법' 개정안은 7개다.
이 중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이
자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7월 법
안 소위로 회부됐고, 김철민의
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부·상
정된 상태다.

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

은 법정 최고금리 연 25%가 10
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도 적용
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1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 최고
금리가 적용되지 않아 취약계층
의 고금리 피해로 이어지고 있
어서다.

김철민 의원은 최고금리 연
25%를 연 20%로 낮추자는 내
용을 담고 있다. 시중은행에서
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
저신용·저소득자들의 이자부담
을 낮추겠다는 것. 다만 김철민

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'대부업
법'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
진키로 했다.

대부업법은 법적으로 등록해
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금융기
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. 은행
과 함께 저축은행 등록 대부업
체까지 적용된다는 것. 반면 이
자제한법은 금융기관을 제외한
미등록업체나 개인간의 금전거
래에 적용된다. 예를 들면 TV에
나오는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
는다면 대부업법이, 친구에게
돈을 빌린다면 이자제한법이 적
용된다.

이에 따라 금리 인하는 이자제
한법과 대부업법을 동시에 개정
해 추진될 예정이다.

현재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
은 9개다. 이중 김 의원이 발의
한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이
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다.

〈2면에 계속〉

/나유리 기자 yul115@metroseoul.co.kr



메트로경제 ‘제5회 뉴테크놀로지포럼’

‘AI+빅데이터’ 트렌드 공유

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구글의 AI ‘알파고’ 간의 바둑대
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둔 역사적 사건 이후, 국
내는 물론 전 세계가 AI에 주목하며 많은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. 4년 여가 지난 올해, 미국의 오픈에이아이가 개발한 AI 언어모델인 ‘GPT-3’는 아직 AI가 ‘내로우 AI’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‘제너럴 AI’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를 만들어낼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선보여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.

이런 가운데 AI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
가 가장 중요한 만큼,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
‘데이터 댐’ 사업이 주축인 된 ‘디지털 뉴딜’ 정책을 대대적으로
진행하고 있습니다. 데이터는 ‘AI의 원유’로 불릴 정도로,
AI의 성능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이 가장 중요한
만큼, 정부는 올해 ‘데이터 댐’에만 추경 예산 5000억원이 투자했습니다.

이 같은 상황에서 메트로신문·메트로경제는 해를 거듭할수록
크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양질의 데이터와 결합해 어
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, 대표 I
T 기업들은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
립하고 있는지 등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.

메트로신문·메트로경제는 이미 지난 1~2회(2016~2017년)
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AI 시대의 도래를 빌빠르게 예견했
으며, 지난해 개최된 4회 포럼도 ‘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
능(AI)’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. 이번 포럼에도 독자
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.

- 주제: 빅데이터를 품은 인공지능(AI)
- 일시: 2020년 11월 25일(수) 14:00~17:00
- 장소: 서울 중구 청파로 464번지 LW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
- 축사: 이원욱 국회의원(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조풍연 한국SW/ICT총연합회회장
- 기조강연: 이경진 경희대학교 교수
(경희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과 인공지능·비즈니스모델 연구소장)
- 강연 1 :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
- 강연 2 : 정영조 KT 마스터
- 강연 3 : 오승택 에이모 대표
- 등록: 사전등록, 홈페이지 접수(www.metroseoul.co.kr)
접속: 참가 신청자 이메일로 개별공지
- 문의: 제5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
(02)721-9826, forum@metroseoul.co.kr

※위 일정 및 후원,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metro



바이든 당선에 원·달러 환율 22개월만에 최저

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6.5원 내린 1,113.9원으로 마감했다.

원/달러 환율이 1,120원 아래로 떨어져 약 2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9일 오후 서울

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.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/달

/연합뉴스

KT, 유료방송 1위 굳히기… 딜라이브 인수 승부수

케이블 예비입찰 단독 참여
인수가격 약 7500억원 제안
성사땐 점유율 41.45% 차지

구현모 KT 대표가 유료방송
1위 사업자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.
KT가 딜라이브 매각 예비
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케이블
TV M&A에 뛰어든 것이다. 이
번 M&A가 성사되면, KT는 유
료방송 시장서 최대 41.45%의
점유율을 차지하며 공고한 1위
사업자로 거듭나게 된다.

◆구현모發 유료방송 1위 굳히
기…M&A 성사될까



구현모 KT 대표.

를 제출했다. SK텔레콤과 LG
유플러스는 정작 의향서를 제출
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KT 단
독입찰이 됐다.

업계에서는 KT가 자회사 KTS
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현대HCN
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당장 추가
M&A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
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
이번 KT의 결정이 의외라는 시
각도 있다. 그러나 급변하는 미
디어 시장과 경쟁사들의 케이블
TV M&A로 가입자 경쟁이 치
열해진 만큼 이번 인수전에 참여
한 것으로 해석된다.

구현모 KT 대표는 33년간 K
T에서 재직하며 그룹 전반의 높
은 이해도를 가졌고, 과거 디지
털 미디어렙사인 나스미디어 인
수를 주도하는 등 M&A 전문가
라고 불리고 있다. 이번 딜라이
브 M&A 추진은 전략적인 구
대표가 KT의 유료방송 1위 지위를
공고하게 하기 위한 전략 중 하
나인 것으로 해석된다.

실제 구 대표는 지난달 취임
이후 기진 첫 기자간담회를 통
해 “제가 회사 내에서 M&A 전
문가로 졸업했다”며 “내년 정도 그림
을 보실 수 있을 것”이라고 ‘빅

딜’을 예고한 바 있다. 또 딜라이
브 등 추가 매물에 대해서도 KT
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충분
히 검토 가능하다며 추가 M&A
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
비췄다.

케이블TV업계에서도 마지막
매물로 나온 딜라이브와 CMB
에 대한 관심이 높다. 특히 매물
로 나온지 수년이 지난지만 가격

이전에 즐거지 못해 M&A 시도
가 번번히 무산됐던 딜라이브의
입장에서는 이번 M&A 기회가
간절할 수밖에 없다.

업계에 따르면 KT는 딜라이
브 인수가격을 약 7500억원 가량
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. 딜라
이브 채권단은 수년 전만 해도
매각가를 1조원 이상으로 책정

했지만, 최근 8000억~9000억원
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
다. 아직까지 이건 차가 있지만
시장에서는 양쪽의 니즈가 맞는
만큼 적정 가격에 합의할 수 있
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딜라이브 채권단은 변수가 없
을 경우 KT를 우선협상대상자
로 선정하고 본격적 매각협상에
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◆M&A 성사 시 점유율 40%대
…미디어이어 ‘ABC’ 사업도 가
속화

이번 M&A가 성사되면 KT
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등
계열사를 포함한 유료방송시장
점유율이 41.45%로 올라간다.

〈4면에 계속〉

/김나인 기자 silkn@